

자기소개서

소 속	○○초등학교	직 위	○○	성 명	○○○
-----	--------	-----	----	-----	-----

<나의 시작>

누군가 나에게 가장 너다웠던 시절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만큼 자신만만한 때가 없지 않았나 싶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으나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시기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 확신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사랑받은 자는 강하기에 뭐든지 가능해 보인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첫 발령지에서 만난 아이들, 부모님의 절대적인 사랑 속에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 없이 용감했던 어린 나와는 너무도 다른 아이들을 만났다. 어린아이가 젊어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의 무게에 마음을 다친 아이들이었다. 그 순간부터 진짜 교사의 삶이 시작되었다. 삶이 고달픈 아이들의 마음에 말을 거는 교사가 되겠다고, 아이들의 여러 겹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 ‘넌 소중한 존재야’ 라고 작은 위로를 전해주는 교사가 되겠다고 말이다.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위로와 지지가 비록 서툴지라도 아이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어느 순간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아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꿈틀대리라 희망하면서 말이다.

<지원동기>

2019년 ○○초 1학년 월요일 1교시의 교실풍경이다. 마음읽기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교실은 아이들의 이야기로 넘쳐났다. 주말 동안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았는지, 할 말도 할 이야기도 참 많은 아이들이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싱거운 이야기일지라도 아이들의 이야기는 ‘정말?’ ‘와~’ 등의 친구들의 추임새 덕에 순풍에 순항을 하며 친구들의 마음속에 큰 파도, 잔잔한 파도 등 다양한 일렁임을 만들었다. 친구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아이들은 ‘화내는 아빠 때문에 속상했겠다’ ‘엄마가 소리 질러서 무서웠겠다’ 등등 자기 마음속의 일렁임을 표현하며 친구 마음을 어루만졌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마음이 맺힌 곳이 풀려 표정이 한결 밝아진 아이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아이들의 어설픔지만 사소한 말 하나가 친구의 상처를 보듬고, 친구의 얼굴에 보일 듯 말 듯 엷은 미소를 만드는 그 시간이 그리웠다. 그 풍경 속 아이들이 그리웠다. 자잘한 일상을 통해 나에게 매번 가르침을 주던 그 아이들이 참 많이도 그리웠다. 그리고 그 그리움 끝에 삼우초 교장 공모에 용기를 냈다.

〈교육철학〉

어떤 준비도 없이 시작된 신규교사 시절, 왜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이 견잡을 수 없이 내 머릿속을 휘저었다. 막연히 내가 배워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살아가게 하고 싶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하던 때 야누슈 코르착의 글 중 “신이여, 아이들을 가장 편한 길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문구를 통해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됐다. 배움의 목적과 과정이 아름다운 길에 대한 꿈을 말이다.

내 아이들을 이끌고 싶은 아름다운 길은 목적도 과정도 모두 ‘사람과 함께 하는 길’이다. 물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길이기엔, 그리고 내 조급한 성정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정도로 지난한 기다림이 예고된 길이었지만 기꺼이 한번 가보고 싶었다. 배움의 과정이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는 길이라면 그것 또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삶에 녹아나 아이들의 일상의 결을 바꿔놓고 언젠가는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함께 배우다 보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모든 배움의 길은 어디를 향해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진정한 배움의 길은 자기를 위한 배움에서 나아가 남을 위한 배움으로 이어져야 한다. 즉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할 뿐 아니라 좋은 세상을 위한 파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삼우초 아이들의 배움의 길이 공동체를 향하고, 그 길에 함께하는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 손을 잡고 공동체적인 길을 함께 걷길 꿈꾼다.